투어 번호
LKC8V6YMB8



북동부 경험 (11일)

11일 · 10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1일 투어는 서해안에서 야프나 반도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 동해안의 트린코말리로 건너간 후, 문화삼각지대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가 캔디를 거쳐 콜롬보로 돌아오는 순환 경로를 따릅니다. 북부의 타밀 유산 유적지, 동해안의 해변 숙박, 문화삼각지대의 고대 도시와 암석 요새를 결합한 후, 캔디의 산악 지역 문화와 수도로의 귀환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행객들은 날루르, 나이나티부, 무네스와람 같은 힌두 사원, 야프나의 네덜란드 요새와 전쟁 기념비, 나가디파 불교 사원, 트린코말리의 코네스와람 사원과 프레데릭 요새, 비둘기섬의 산호초를 봅니다. 더 남쪽으로는 폴로나루와의 유적, 미네리야 국립공원의 사파리, 시기리야 암석 요새, 담불라 동굴 사원, 시기리야 근처의 마을 체험, 마탈레 근처의 향신료 정원, 캔디의 치아사원과 전통 춤 공연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날들은 콜롬보의 도시 관광과 핀나왈라 코끼리 보호소를 추가한 후 출발합니다.

투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용 차량과 운전 가이드와 함께 진행되므로, 매일의 속도와 정차 위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투어는 도착 후 네곰보 인근의 중요한 힌두 사원 단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문네스와람 사원

적어도 서기 1000년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지역의 중요한 힌두 사원 단지로, 전설에 따르면 대서사시 라마야나와 그 영웅왕 라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시바 신에게 바쳐진 다섯 개의 고대 사원 중 하나입니다.

Leon Meerson · CC BY-SA 2.0

Day 2 네곰보 → 자프나

이번 여정은 북쪽의 자프나 반도로 향하며, 힌두 사원, 식민지 시대의 유적지, 전쟁 기념관을 둘러봅니다.



날루르, 나이나티우, 마빗타푸람 사원

4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고대 힌두 사원들로, 건축과 공예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Gane Kumaraswamy · CC BY-SA 2.0

자프나 더치 포트

자프나에 있는 식민지 시대의 요새로, 최근 분쟁의 전쟁 기념관들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라스와티 마할 도서관

자프나의 역사적인 도서관으로, 나가디파 비하라와 자프나의 마지막 왕인 칸킬리 1세의 궁전과 함께 방문합니다.



나이나티우 나가푸샤니 암만 사원

적어도 2천 년의 기록된 역사를 지닌 사원으로,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록에도 등장하며 인드라 신 숭배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드라비다 양식의 건축으로 네 개의 고푸람과 여러 만다팜, 전차들이 있으며, 전 세계에 단 64곳뿐인 샥티 피담 중 하나입니다.

Wikinamaste · CC BY-SA 3.0

Day 3 자프나

자프나에서 보내는 하루는 섬에서 가장 신성한 불교 유적지 중 한 곳에 집중됩니다.



나가디파 푸라나 비하라야

스리랑카의 가장 신성한 16대 불교 성지 중 하나로, 독특한 건축 양식과 부처님의 두 번째 섬 방문과 관련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derivative work: Taprobanus (talk) NainathivuNahaVihara.JPG: Regunathan Umapathy · Public domain

Day 4 자프나 → 트링코말리

트링코말리로 가는 길에는 고대 동굴 사당, 마을의 식민지 시대 요새, 그리고 불교 마을 티리야야를 둘러봅니다.



코네스와람 사원

인도의 시인-성자들이 찬양한 고대 사원으로, 그 역사를 그린 벽화들이 있습니다. 동굴 사당은 기원전 15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본 사원은 기원전 400년경에 세워졌고, 거대한 라바나 왕의 석상은 이곳에서 전해지는 그에 대한 전설적인 숭배를 상징합니다.

Shamli071 · CC BY-SA 3.0

트링코말리 요새(프레더릭 요새)

1624년 포르투갈인들이 파괴된 코네스와람 사원의 돌을 사용해 처음 건설했으며, 이후 네덜란드인들이 해체하고 프레더릭 요새로 재건했습니다.



티리야야

한때 타밀 불교가 행해졌던 마을로, 부처님이 두 상인에게 머리카락 사리를 준 장소로 알려진 기리하두 세야 스투파와, 마지막 반니야르 족장 중 한 명의 요새 유적이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5 트링코말리

트링코말리 해안의 해양 생물과 산호초를 탐험하는 하루입니다.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작은 섬과 큰 섬으로 이루어진 공원으로, 큰 섬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위 비둘기의 번식지이며 다양한 산호와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6 트링코말리

트링코말리의 해변을 즐기는 자유 일정입니다.



트링코말리 해변

동부 해안을 따라 펼쳐진 황금빛 모래, 흔들리는 야자수, 맑고 푸른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Kondephy · CC BY-SA 4.0

Day 7 트링코말리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 시기리야

남쪽으로의 여정은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를 지나, 시기리야로 가는 길에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깁니다.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수도입니다. 주요 볼거리로는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목욕탕, 란카틸라카 사원,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석상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5월부터 10월 사이에 15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 유명한 민네리야 국립공원을 둘러보는 사파리로,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8 시기리야

이날은 시기리야 암벽 요새 등반과 함께 마을 체험, 담불라 석굴 사원 방문이 이어집니다.



시기리야 암벽 요새

5세기경 카샤파 왕이 건설한 암벽 요새로, 사자의 발 모양으로 꾸며진 입구를 통해 들어갑니다. 등반길에는 색이 바래지 않은 벽화,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와 왕궁 유적으로 이어지는 터널들을 볼 수 있습니다.

Wrobell · CC BY-SA 3.0

마을 체험

소달구지를 타고 평온한 호수에서 카타마란 사파리를 즐기며, 논길을 걷고 전통 요리 시범을 보고, 연잎에 담긴 가정식 점심을 맛보며 마을 생활을 체험합니다.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석굴 사원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수백 개의 부처상과 신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성한 왕의 석굴과 위대한 새 사원이 포함됩니다. 단지 밖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9 시기리야 → 마탈레 → 캔디

캔디로 가는 길에 투어는 마탈레 근처의 향신료 정원에 들른 뒤, 도시의 주요 불교 사원과 전통 공연을 관람합니다.



향신료 및 허브 정원

고수, 고추, 계피, 카다몬, 육두구 등 향신료에 대한 가이드 투어로, 요리 시범과 로티 또는 커리 파우더 만들기 워크숍이 포함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불치사(佛齒寺, 신성한 치아 사리 사원)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림이 그려진 홀, 조각된 기둥, 황금 불상들이 있습니다.

A.Savin · FAL



캔디 전통 공연

불춤, 검무, 캔디안 댄서들의 드럼 공연 등 스리랑카의 전통 예술을 선보이는 1시간 분량의 공연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전통 공예 체험

보석 세공, 목공예, 바틱 염색 등 전통 공예와 관련된 방문입니다.

Day 10 캔디 → 콜롬보

마지막 구간은 콜롬보로 향하며, 도시의 주요 명소와 피나왈라 코끼리 보호소에 들릅니다.



콜롬보 시내 명소

올드 라이트하우스, 옛 국회의사당, 갈르 페이스 호텔, 갈르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야 사원, 국립박물관 등 수도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독립광장과 경마장 주변에서 쇼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Gihanud2001 · CC0



피나왈라 코끼리 보호소

사바라가무와 주에 위치한, 자연 서식지에서 쫓겨나거나 길을 잃은 어린 코끼리들의 보호소입니다. 약 70마리의 코끼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사육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1 콜롬보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출발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